






2017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일반공모 총평-

심사위원 서명 김인우 (인) 

서명 우명숙 (인) 

서명 백진주 (인) 

서명 신동진 (인) 

서명 김재이 (인)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일반공모

[꿈다락 놀이터] 심사 총평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학교 및 사설 교육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예술적 경험을 쌓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의 증진, 일상 및 지역에 대한 시선의 확장, 미적 체험을 통한 삶의 고양감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차별화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다. 즉, 재미와 체험을 넘어 성찰과 발견을 추구하는 예술과 교육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이해 정도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중점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예산 구조의 합리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심의 중점사항은 1)과정으로서의 문화예술 및 교육에 대한 입장과 이유가 설득력이 있는가 2)기획자와 주강사의 예술적 경험과 역량은 충분한가 3)기획자와 주강사의 협력적 관계와 프로그램에 대한 분명한 공감에 있는가 4)프로그램 참여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5)본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가였으며, 해당 지역의 지원의 필요성 및 긴급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따라서 기획의 이유와 진정성이 불분명한 단순 나열식(백화점식) 프로그램 구성, 지시 중심 혹은 결과물 중심의 일방향 프로그램 설계, 실현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 부재, 주강사의 예술적 경험 및 역량의 부족, 과년도 사업에서의 발전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각 이슈별 의견 차이가 큰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이 경우 본 사업의 취지와와의 부합성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이라는 본질적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였다.

몇 가지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기획의 '이유(Why)'를 중심으로 지원서를 작성한 것은 재단과 지원단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재단 및 심의위원은 이를 통해 서류 작성의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술적 경험과 진정성, 자기만의 이유를 가진 단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원단체 스스로도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재인식을 제언하면서 심의평을 마치고자 한다. 본 사업에 지원한 기관 및 단체들 중에는 일상예술을 일상에 대한 문화예술적 재해석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전문적 역량으로 수행해도 무방한 아마추어 프로그램으로 오해한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 청소년의 '재미'를 프로그램 수월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재미를 넘어선 성찰, 체험을 넘어선 변화를 추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이며,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형에서 개선되어야 할 인식이라 하겠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과 함께 단체의 운영 인력 스스로가 완성도 있는 예술교육을 경험하고, 교육 참여자와 함께 발전하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실천하여,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주체들로 서기를 기대해본다.

□ 심의위원 (가나다순)

김정이 (문화 기획자)

남인우 (극단 북새통 예술감독)

백현주 (수원시평생학습관 기획실장)

설동준 (공연예술 기획자)

오명숙 (새롭게보는박물관학교 대표, 작은도서관사이 대표)